

# “강진 힐링 프로그램 ‘푸소체험’ 최고” 전국이 반했다

강진군의 '푸소(FU-SO)체험'이 광주·전남권역을 넘어 서울과 충청권까지 보폭을 넓히면서 전국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강진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4년째에 접어들면서 3월말 현재 기준 푸소체험을 신청하거나 예약한 학생은 7254명이며 공무원 1950명과 일반인 143명을 합치면 1만명에 이른다며 밝혔다.

**?** 푸소(FU-SO)체험  
필링(Feeling)은 올리고(Up) 스트레스(Stress)는 날려버리라(Off)는 뜻으로 농촌집(푸소체험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서울 청운중 2년 연속 방문...충청·경기도 학생까지 참여  
맛·맛·정 가득한 감성여행 매력에 외국인 방문도 줄이어  
운영 4년째 1만명 찾아...농가 농업 외 소득 증가 효과로

◇서울 청운중 2년 연속 방문...경기도권역 초등학교도 참여=지난 3월 2박3일 일정으로 대전 중앙중 2학년생 100명이 푸소체험을 했다. 지난해 서울 청운중에 이어 충청권 중학생들이 강진을 찾은 것이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도 모두 편안하고 신나게 가우도를 돌고 맛있는 음식에 정이 한 순간에 많이 들었다”면서 “미세먼지 탓에 날씨는 다소 흐렸지만 외할머니처럼 잘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월에는 경기도 안성 비룡초 어린이들이 푸소체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청운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강진을 다시 찾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정을 바탕으로 한 감성여행이 외국인들의 취향도 '저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여행사 '여행공방'을 통해 지난 7~8일 이틀간 강진 푸소체험을 한 외국인은 모두 70명. 이들의 국적은 미국과 인도, 프랑스, 러시아, 네팔, 폴란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독일, 스웨덴, 칠레, 싱가포르, 벨기에, 영국 등 다양했다.

이들은 첫날 강진에서 점심을 먹은 뒤 고려청자박물관과 민화뮤지엄에서 강진 고려청자의 역사와 문화, 민화의 특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푸소 농가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엔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가 강진만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서울로 돌아갔다. 강호선 여행공방 대표는 “강진이 갖고 있는 여행관광 요소들은 외국인들이 보고 즐기기도 안전맞춤”이라며 “푸소체험 역시 강진의 특성과 감정을 충분히 반영한 일정이어서 모두들 좋아했다”고 말했다.

◇푸소체험 농가 농업 외 소득으로도 짝짝 '흐뭇' =푸소체험의 인기와 함께 지역 농가들

은 농업 외 소득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푸소체험으로 8091명이 다녀가 5억24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전년 농가소득은 9500만원 증가해 22.1%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10월이 체험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월, 9월 순이었다.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늘어 지난 2015년 86농가가 참여한 농가당 평균 100만원을 수익을 올리던 것이 지난해에는 참여 농가가 121가구로 늘었다.

푸소체험을 운영한 한 농가는 “집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며 “농업 외에도 버니 가정경제도 든든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험에 참여한 도시민과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라며 “그들은 아름다운 풍광에 날씨보다 더 따뜻한 정이 더해져 강진에 흠뻑 취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농가당 평균 소득도 5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체험 농가들의 소득을 합치면 5억원이 훨씬 넘는다.

군은 올해 7억원대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자치단체장의 전략적 판단과 공무원들의 헌신, 푸소체험 농가들의 열정이 모아진다면 강진이 전국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원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진군 이준범 문화관광과장은 “강진은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영랑 김윤식 생가 등 역사 문화유적이 많아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이어 올해는 'A로의 초대'정책에다 푸소체험 프로그램을 덧붙여 더욱 많은 이들이 강진을 찾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지난해 수확여행으로 푸소체험을 선택한 서울 청운중 학생들이 강진해변을 걷고 있다. 서울 청운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강진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강진군 제공>



지난 7일 푸소체험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농가에서 한국의 가정 문화와 음식을 체험했다.



푸소체험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이 농가의 설명에 따라 녹차잎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 필링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떨치고 ‘푸소체험’

### 전남도 ‘남도여행 으뜸상품’ 선정

전국 최고의 힐링프로그램임을 입증한 ‘푸소(FU-SO)체험’은 최근 전남도의 ‘남도여행 으뜸상품’으로 선정됐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에 등극한 푸소(FU-SO)체험은 필링(Feeling)은 올리고(Up) 스트레스(Stress)는 날려버리라(Off)라는 뜻을 담았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버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푸소체험은 1박2일 또는 2박3일 강진의 시골집에서 머물며 자연을 느끼고 외할머니의 정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에서 인성을 키우고 동시에 감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확 줄여 주는 덕분에 각급 학교와 공무원들의 체험학습 모델로 확실히 올라섰다는 평가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오페라 공연 관람과 청자에 꿈을 새겨 나만의 청자점시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영랑감성학교’를 시작으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경을 보며 추억을 만드는 ‘가우도 함께해(海) 트레킹’과 집에서 매일 하는 스마트폰과 잠시 떨어져 시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까지 하고 나면 푸소체험을 한 강진의 농가는 제2의 고향이 된다.

이처럼 푸소체험은 초·중·고 수확여행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착안해 감성여행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델이 되고 있다.

푸소체험이 ‘수확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최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100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내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새마을을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